

차범석 희곡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의 극적 행위 연구

김 향^{*}

〈차례〉

1. 서론
2. 행위 분석 방법론
3. <갈매기떼>의 '부정한 정치 사회'에 대한 리얼리티
4. <薔薇의 城>의 '금기로 인해 단절된 욕망'에 대한 리얼리티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車凡錫(1924~) 희곡 <갈매기떼>(1963)¹⁾와 <薔薇의 城>(1968)²⁾에서 드러나는 극적 행위(action) 연구를 통해 '삶의 리얼리티(reality)'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범석은 1955년 『조선일보』에 당선된 <密酒> 이후 2003년 제8희곡집에 실린 <玉丹어!>에 이르기까지 반백년 동안 40여 편에 달하는 희곡과

* 연세대 강사

- 1) 차범석, 「갈매기떼」, 『幻想旅行 : 車凡錫 第三戯曲集』, 語文閣 1975, 81~165면
- 2) 차범석, 「薔薇의 城」, 『代理人 : 車凡錫戯曲集』, 宣明文化社, 1969, 207~284면.

다수의 방송 드라마를 썼으며 외국 작품을 번역하여 공연한 극작가이다. 또한 1963년 9월에는 동인제 극단 山河를 만들어 '연극 대중화 운동'을 주창하여³⁾ 60년대 연극계가 50년대 연극계와 다르게 '대중을 계도하는 연극'으로부터 '대중을 위한 연극'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⁴⁾

그의 다수의 작품들 중 본 논문에서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두 작품이 '항구나 섬 등의 가난한 서민의 곤비(困憊)를 다룬 로칼리즘과 6·25 전쟁의 상처 문명화에 따른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 애욕과 갈등, 정치의 허위성과 그 비리,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과 그에 따른 전통적인 것의 몰락'이라는 주제적인 요소들⁵⁾을 두루 지니고 있으면서 당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작품들⁶⁾이기에 새롭게 조명될 만한 작품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갈매기떼>는 "사랑과 진실을 주제로 삼고 있는 사회극..... 정치의 비리 폭로와 정의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의 모순성, 삶의 부조리를 묘사"⁷⁾했다는 유민영의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작품의 특징은 1960년대 연극(희극)계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였던 4.19를 소재로 한

3) "大衆이라는 말은 觀客이라고 代置해도 좋다. (중략) 그런데 이른바 知識層만을 대중의 개념으로 삼고 知識層이 支持하는 演劇만이 演劇의 本領인 양 고집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략)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大衆化를 曲解한 나머지 演劇의 質的低下를 不辭하고라도 觀客數만 무더기로 動員하면 第一이냐고 빈정댄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演劇을 大衆化시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質的인 水準을 堅持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主唱이다." - 차범석 「演劇을 大衆의 것으로」, 『서울신문』, 1965. 3. 25.

4) 백로라, 「1960년대 연극 운동론」, 『한국극예술학회』제12집, 2000, 251면.

5) 위의 글, 211면

6) <갈매기떼>는 극단 新協의 재기공연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연출가 이해랑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작가가 공을 들인 작품이고 김승호, 허장강, 조미령, 장민호, 황정순, 이민자, 황해 등 당시 영화·연극계의 황금배우들이 출연하면서 개막 첫날부터 초만원을 이룬 작품이다. 차범석, 『幻想旅行』, 346~347면

7) 유민영, 「차범석 론 - 변천하는 사회의 풍속도」, 『한국 현역 극작가론2』 예니 1986, 224면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 없이는>(1960)과는 성격을 달리하면서 좀더 리얼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 없이는>이 정치인의 부정과 사리사욕을 가족 내에서 자식들과 갈등하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면 <갈매기떼>는 가족이라는 갈등 공간을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부정한 선거의 희생자가 되는 민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갈매기떼>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이 가난한 민중들을 이용하여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한층 보편적인 사회 문제 형상화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갈매기떼>는 당시 스타시시스템으로 드물게 흥행에 성공하던⁸⁾ 동인지 극단 신희의 공연작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권력의 문제를 잘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장미의 성>은 극단 山河의 제10회 공연작품으로 1968년 표재순이 연출하고 천선녀, 조령일, 강부자, 이광민, 전운 등이 배우로 출연한⁹⁾ 작품이다. 3·1 연극상 대상을 수상했고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고 싶어하는 지식층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¹⁰⁾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차범석에게 있어 ‘사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¹¹⁾ 그런데 <장미의 성>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랑은 사랑의 절대성을 신봉하는 상류층 여성이 남편의 동성애(양성애)에 배신감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받아 비이성적인 극적 행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차범석은 4.19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동성애라든지 <왕교수의 직업>(1962)에서는 히피문화를, <열대어>(1966)에서는 기독교 집안에서 흑인 머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성·성·인종·종교의 문제는 1960년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볼

8) 「63년의 鳥瞰 예술계」, 『한국일보』 1963.12.19.

9) 차범석, 『代理人』, 208면

10) 차연화, 「차범석 생애와 작품세계」, 『차범석 희곡 연구』, 무천극예술학회, 국학자료원, 2003, 23면.

11) 유민영, 앞의 글 220면.

때 근대 세계가 근대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탈근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특히 여성 문제는 반전운동과 더불어 남성 중심의 질서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탈근대 운동’¹²⁾이었다. 그런데 차범석이 작품에서 형상화하는 여성·성·인종의 문제는 서구의 탈근대 움직임과는 달리 4.19 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의식을 지니면서도 보다 내면적인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고 있다. ‘사랑의 문제’에는 여성이 중심인데, 갈등의 대상은 남성의 폭력적인 억압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한 단절된 욕망이다. “리얼리즘 희곡의 최고봉”¹³⁾이라는 평가를 받는 차범석의 <산불> 역시 전쟁이라는 외적인 현실로 인해 단절된 욕망을 실현하려다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대의 연구자에 의해 <산불>이 사실주의를 잘 실현했다기보다는 ‘세 인물의 통속적인 삼각관계로 단순한 반공 멜로드라마로 격하될 우려가 있는 작품’, ‘남녀관계의 통속적 표현’¹⁴⁾으로 지적받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차범석 특유의 ‘애욕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전통적인 인습에 매여 남편을 원망하면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미의 상>에 주목하게 된다.

선행 연구서를 살펴보면 이 두 개별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문 형편이고 열 편이 넘지 않는 차범석 희곡에 대한 학위논문들 중 대다수가 <산불>을 연구대상¹⁵⁾으로 삼고 있다. 무천극예술학회에서 발간한

12) 서연호·이상우,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192~193 면

13) 유민영, 앞의 글 219 면

14) 김방옥, 앞의 책, 140~141 면

15) 강용준, 『戯曲<산불>의 드라마투르기 분석연구』, 慶熙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1.

김정목, 『車凡錫의 <山불> 研究』, 朝鮮大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현정, 『차범석 희곡 산불 연구』, 崇實大 석사학위논문, 1999.

박은서, 『차범석 희곡 <산불>에 나타난 갈등구조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차범석 희곡 연구』¹⁶⁾는 차범석 작가, 작품론이 귀한 풍토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한 연구서이지만, 개별 작품 연구가 더 보강되어야 할 듯하다. 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문학 연구서에서 차범석 희곡 연구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¹⁷⁾ 1960년대 희곡 문학 연구¹⁸⁾

천승준, 「과국의 드라마 - 불모지 · 산불」, 『현대 한국문학전집』9 (車凡錫, 吳有權, 秋湜 集), 新丘文化社, 1966, 481~487 면

16) 무천극예술학회, 『차범석 희곡 연구』, 국학자료원, 2003.

17) 김상열, 「운명론적 세계관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전후문학연구』, 조건상 편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169~193 면

김성희, 「1950년대 한국 희곡에 나타난 가정문제 고찰」, 『한국연극학』 제 호, 1997, 51~82 면.

김옥란, 「전후세대 남성 극작가의 현실인식」, 『한국 현대 희곡과 여성성/남성성』, 연극과인간, 2004, 47~77 면

박명진, 『한국전후희곡의 담론과 주체구성』, 월인, 1999.

손화숙, 「1950년대 리얼리즘 희곡의 한 양상 - 차범석의 초기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현대희곡연구』, 국학자료원, 1997, 52~69 면

안한상, 「삶의 形象化로서의 리얼리즘극」, 『한국전후문학연구』(구인환 외), 삼지원, 1995, 305~324 면

여세주, 「차범석의 리얼리즘 정신과 50년대 희곡」, 『論文集』(경주대학교, 제2집 제2호), 1999, 845~871 면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윤여탁, 「1950년대 희곡의 전개양상」, 『한국전후문학연구』(구인환 외), 삼지원, 1995.

장혜원, 「1950년대 후반기 희곡의 담론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정호순, 「차범석의 리얼리즘 희곡 연구-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8집, 한국극예술학회 편, 태학사, 1998, 349~379 면

홍창수, 「차범석의 전쟁 소재 희곡의 연구」, 『어문논집』 38 호, 민족어문학회, 1988, 271~293 면.

박노현, 「'생존'과 '생활'을 구획 짓는 戰後의 건축학」, 『한국전후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이회문화사, 2002, 247~264 면

18) 민족문학사연구소(희곡분과) 편, 『1960년대 희곡연구』, 새미, 2002.

백로라, 「1960년대 희곡 연구: 차범석 · 이근삼 · 박조열 · 오태석을 중심으로」,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경복 『車凡錫 戯曲 研究』, 梨花女大 석사학위논문, 1988.

이승희, 「풍속도의 보수적 휴머니즘 - 1960년대 차범석 희곡」, 『한국 사실주의

에서 차범석 희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데 주로 주제 중심의 담론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밝히려는 ‘삶의 리얼리티’에는 현실을 인식하는 작가의 개념들이 반영되어 있다. 선행 연구서에서 작가 차범석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명진은 <불모지>를 대상으로 논하면서 1950년대 사회·정치적인 구조 문제에 대해 차범석은 대결의지를 보이기보다 가치 중립적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¹⁹⁾하고 있고 김상열은 전후문학연구에서 차범석의 운명론적인 세계관에 대해 지적²⁰⁾한다. 이승희는 1960년대 차범석 희곡을 논하면서 그가 유치진의 뒤를 잇는 사실주의극작가로서 계몽주의적, 공리주의적 연극관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억압되고 배제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운명론적 관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보수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말았다²¹⁾고 평가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의 이러한 평가는 차범석 역시 당시 사회·정치적인 사상통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5.16 이후 군사 정권은 지식인들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대체로 성공했다. 당시 반공이라는 허위 이데올로기는 전쟁이 초래한 혹독한 체험과 체계적이고 이념적인 세계 해석을 원천적으로 봉쇄²²⁾하고 있었던 것이다. 4.19가 이러한 정신적 분위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대 타격이었지만 이는

희곡, 그 욕망의 식민성』, 소명출판 2004, 369~407면

이홍우, 「차범석의 희곡 창작 기법 연구 - 1960년대 후반 극단 ‘산하’ 공연 작품을 중심으로」, 『차범석 희곡 연구』(무천극예술학회), 국학자료원, 2003, 91~122면.

19) 박명진, 앞의 책, 128~129면

20) 김상열, 앞의 글, 170, 193면

21) 이승희, 앞의 책, 370, 405~407면

22) 홍석률,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1963~197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 1999, 198면. (임경순, 「1960년대 소설의 주체와 지식인적 정체성」, 『상허학보』12집, 상허학회, 2004, 14면에서 재인용.)

계기로 작용했을 뿐 1960년대 문학계에서의 지식인은 관료로 편입된 지식전문가와 현실 변혁을 위한 개혁세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미약한 맹아²³⁾로 존재한 것이다. 60년대 지식인은 이중적으로 얽어 매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1960년대를 산 희곡 작가 차범석 역시 60년대 지식인들의 미약한 면을 내면화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며 그러한 면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 선행 연구자들의 ‘초보적 리얼리즘’, ‘보수적 담론 형성’이라는 평가는 결국 차범석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미약한 지식인의 면모’를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범석은 ‘미약한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에 스며 있는 비민주적인 질서와 다양한 전통인 인습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 등장인물들의 극적 행위는 그동안 관례로 여겨지던 금권정치, ‘동성애 금지’라는 사회적 인습에 물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민영이 <불모지>와 <청기와집>을 논하면서 “전통을 보는 시각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긍정적인 눈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바뀐다”²⁴⁾는 언급은 차범석이 때로는 계승해야 할 것으로 때로는 인습으로 치부될 수 있는 전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을 행위(action)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리얼리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논하려 한다. 행위 분석은 삶의 리얼리티가 연극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방법이다. 또한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을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로 소재와 주제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선행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3) 임경순, 위의 글 15면

24) 유민영, 앞의 글 230면

2. 행위 분석 방법론

차범석은 “나는 보다 절실하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리얼리즘을 신봉하고 싶고 그것을 구현하고 싶은 충격을 느낀 지 오래이다..... 리얼리즘 연극의 수립을 공고히 해야 한다”²⁵⁾는 사실주의극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주의극은 암암리에 “있는 그대로의 일을 재현하고, 진리를 진술하는 것”²⁶⁾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실주의극의 “독보적인 인식론적 지위”²⁷⁾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속한 사람들도 무엇이 현실이고 진실이냐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지닐 수는 없다. 항상 서로 다른 인식론적 명제들이 철학적인 차원에서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병존²⁸⁾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경험적 현실과 연극적 현실을 기계적으로 동일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과정에는 선택과 배열의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사실주의극은 아무리 리얼리티의 인상을 불러일으켜도 그것은 투명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실주의극은 “현실세계를 반영하면서도 그 자신만의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것”³⁰⁾이며 인위적 구성에 지배받는 ‘자기충족적 체계’³¹⁾라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사실주의극은 선택과 배열에 따른 하나의 구성이기에 필연적

25) 차범석,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현대 한국문학전집9 (車凡錫 吳有權 秋湜 集)』, 新丘文化社, 1966, 497면

26) Robert Lapsley and Michael Westlake, *Film Theory: An Introduction*, Manchester: Manchester UP, 1989, 156면 (김용수, 「유치진의 사실주의극에 담겨진 삶의 감각」 『한국연극 해석의 새로운 지평』, 서강대출판부, 1999, 180면에서 재인용.)

27) 위의 책, 156면

28) Stephan Khol,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여균동 역, 미래사, 1986, 176면

29) Gustave Reynier, *Les origines du roman réaliste*, Paris: Hachette, 1992, 5~6면. (위의 책, 192~193면에서 재인용)

30) Lilian R. Furst, "introduction", *Realism*, ed. Lilian R. Furst, London: Longman, 1995, 8면

31) 위의 책, 10면

으로 리얼리티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시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개념들”³²⁾을 갖고 리얼리티를 조망하는 것이다. 연극을 비롯한 모든 문화 산물은 선택 과정이 불가피하며, 사실주의극도 “하나의 선택일 뿐 아니라 하나의 해석”³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들은 연극적 관습을 동반한 ‘감정구조’³⁴⁾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 극은 행위(action)로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기에 ‘감정구조’ 역시 극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감정구조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조망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삶의 방식과 특정한 삶의 감각, 그리고 특정한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³⁵⁾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어떤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는지³⁶⁾를 논할 수 있다.

극에서의 행위는 외적으로 표출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외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즉 외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의도, 목적, 동기, 희망 욕구, 감정 같은 행동이 인물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³⁷⁾가 되는 것이다.

<갈매기떼>의 경우는 등장인물 서운근이 자신이 부정한 정치활동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서는 행위를 보여준다. 한편 <장미의 성>에서는 남편의 동성애에 상처받은 등장인물 윤병희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를 분석할 때에 우리는 베커만이 논하고 있는 ‘활동적(active) 행위’와 ‘반응적(reactive) 행

32) Bernard Beckerman, *Dynamics of Drama: Theory and Method of Analysis*, New York: Drama Book Specialists, 1979, 132 면

33)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 Penguin Books, 1965, 53 면

34) Raymond Williams, *Drama from Ibsen to Brecht*, London: The Hogarth Press, 1987, 19~20 면
Raymond Williams,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2003, 183~195면.

35)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41, 48면.

36) 김용수, 『드라마 분석 방법론』, 집문당, 2004, 173면.

37) 위의 책, 155 면

위³⁸⁾, 피스터의 ‘행위(action) 중심의 극’과 ‘사건(event) 중심의 극’³⁹⁾, 이들의 논의를 한국 사실주의극에 맞추어 수용한 김용수의 ‘현실대립적 행위’와 ‘현실반응적 행위’⁴⁰⁾ 이론이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차범석이 정치 사회와 인간의 욕망을 그려내고자 할 때에 등장인물이 극적 현실에 대해 어떠한 감각을 지니고 반응, 또는 대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활동적 행위’, ‘행위 중심의 극’, ‘현실대립적 행위’는 명백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⁴¹⁾ 주어진 리얼리티에 대해 저항하는 행동으로 인간과 사회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립에서 초래되는 긴장을 야기한다. 상황의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의 행동이 중심이 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닫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실반응적 행위’, ‘사건 중심의 극’은 주어진 리얼리티에 대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로 주로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방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상황의 변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결여된 사건을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현실’반응적 행위’는 현실과 대립하기보다는 등장인물의 감정의 폭발을 유보하면서 그 정서를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를 불러내고 현재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유보된 감정은 억제되지 않는 슬픔과 죽음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깨닫게 하는⁴²⁾ 열린 구조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반응적 행위’는 개인의 극단적인 마음 상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작위적인 행위⁴³⁾를 설정하고 그 감정 상태를 유보하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38) Bernard Beckerman, 앞의 책 80~87면

39) Manfred Pfister, *The Theory and Analysis of Drama*, Cambridge:Cambridge UP, 1988, 200~201면

40) 김용수, 「유치진의 사실주의극에 담겨진 삶의 감각」, 182~183면.

41) Bernard Beckerman, 앞의 책, 86면

42) 위의 책, 82면

43) 위의 책, 86~87면.

그런데 ‘활동적인 행위’와 ‘반응적인 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라기보다는 한 작품 안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행위⁴⁴⁾이며 표면적으로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와 심리적으로 사건을 유보하면서 정서를 확장시키는 행위라 논할 수 있다.

그리고 차범석은 “인간의 행동은 인간 자체의 자연적 존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외적 자연과 항시 적응하려고 하고 반발하려고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작용을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⁴⁵⁾라고 논하고 있다. 차범석 역시 목적의식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감정의 유보(정체)를 보이는 행위,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실주의극이 구현된다고 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범석은 사실주의극에서 배우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익혔던 그리고 몸에 밴 정서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논하는 ‘감정 구조’는 바로 배우를 통해 표현되는 정서라고 볼 수 있겠다. 약속된 행위와 감정구조의 관계를 통한 분석은 주제와 형식 간의 상호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경험의 변화를 묘사하는 실제적인 방법⁴⁶⁾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주의의 정신은 현실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 있지 않고 현실의 핵심을 통찰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주의는 다수에게 관습적으로 인정된 현실개념을 탈피하여 사회정치적 인습에 따라 은폐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⁴⁷⁾ 즉 사실주의극에는 다수에게 공인된 현실개념에 머물지 않는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갈매기떼>의 주동인물은 모순적인 삶에 문제의식을 지니며 반동인물에 대립하는 행위를 하지만 주변 인물들은 저항하기보다 슬픔의 정서

44) 위의 책, 80면

45) 차범석, 「리얼리즘 演劇 小考」, 『연극학보』 2집,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1968, 48면.

46) Raymond Williams, *Drama from Ibsen to Brecht*, 20면

47) Stephan Khol, 앞의 책, 196면.

를 간직한 채 다양한 극행동으로 작품 전체에 애상적인 정조를 만들어낸다. <장미의 성>에서의 주동인물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분노를 분출하기보다 유보하는 행위를 통해 슬픔과 고통을 증폭시킨다. 주변인물들은 주동인물이 진실을 감추고 있기에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해로 인해 파괴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3. <갈매기떼>의 ‘부정한 정치 사회’에 대한 리얼리티

1) 치량한 삶의 공간과 권력자들의 음모의 공간

<갈매기떼>의 무대 공간은 차범석의 고향인 목포 항구의 어느 한 객주집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하다. 1958년 여름 남한에 있는 항구도시의 영흥관은 2층까지 있는 객주집인데 객석에서는 아래층 전경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여관과 주점을 겸한 건물로 검은 때에 짙은 탁자 등이 부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공간에 대한 지시문을 보면 무대 공간은 크게 마루방을 중심으로 한 객주집 1층과 2층 그리고 무대 왼편 객주집 밖 공간과 돌계단을 올라 선창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크게 네 등분 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 길과 바다 위에 걸쳐서 지은 집이라 마루방은 바다 위에 있고 홀은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름이라 창문을 모두 떼었기에 무대 정면 가득히 바다가 내다보인다. 역시 객주집 유리문 밖 층계를 오르면 항구의 일부와 바다 풍경, 그리고 밤이면 반짝이는 등대가 보인다.

막이 오르면 영흥관 홀에서는 해남댁이 객주집 사람들을 다그치며 특별한 손님에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칠성이가 못 사온 전복을 해남댁이 직접 사러갈 정도로 신경쓰는 손님이 오는 날인 것이다. 그날 올 손님들은

시의원 임상옥과 부두 노동조합장 한기호, 갈매기떼 두목 나상만으로 그 지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 위해 영흥관에서 회동을 하는 것이다. 객주집 밖 2층 무대는 갈매기떼들이 정보 원이라는 정체 모를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가난한 섬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뜯는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1막에서 갈매기떼들이 통제물품인 소금을 운반하는 청년을 협박해서 소금을 빼앗는 장면이 연출된다.

해남택이 그렇게 기다리던 손님들이 도착하고 이들은 2층 무대로 올라간다. 그리고 1층 홀에는 부두 노동자들과 갈매기떼들이 술을 마시러 모여들면서 1층과 2층 무대에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된다.

2층에선 이따금 호탕한 웃음소리며 옥란이와 해남택의 간드러진 목소리도 섞이어서 들려온다. 그럴 때마다 갈매기떼들은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금순네가 술심부름을 한다. 바깥 가로등 아래선 칠성이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고 할아범이 즐기고 있다.⁴⁸⁾

무대 1층에선 즐기고 있는 할아범의 행위와 하모니카를 부는 칠성이의 행위로 시·청각적으로 고단하고 처량한 민초들의 정서가 흐르고 있는데 2층에서는 청각적인 장치로 유쾌한 정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층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권력자들의 비행은 객주집 1층 갈매기떼들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임상옥은 민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일본에서의 밀수로 돈을 챙기고 그것으로 금권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임상옥은 돈으로 노동자들의 표심을 사려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 조합장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건재 세력인 강대명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래서 임상옥은 노동조합장과 갈매기떼의 힘을 빌어 강대명을 제거하고 금권

48) 차범석, 「갈매기떼」, 『幻想旅行: 車凡錫 第三戯曲集』 語文閣 1975, 101면 이후에 작품의 지문이나 대사를 인용할 때는 각주가 아닌 본문에서 괄호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층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갈매기떼들은 항구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들 이름은 ‘외팔이’, ‘딱총’, ‘키다리’로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들이다. 외팔이와 딱총은 서운근이 6.25 전쟁통에 아내를 잃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키다리의 대사 “사변에 어떤네 잃은게 저 뿐이라던 우리는 모두가 상처받은 병신인데 자 술이나 들이켜고 나가자!”(『환상여행』, 104쪽)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전쟁으로 인해 내·외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다. 전쟁에 상처받은 갈매기떼들은 동정심을 지녔으면서도 서민을 괴롭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동지 서운근을 제거하려 하는 모순되고 왜곡된 행위를 한다. 이러한 갈매기떼와 섞여 있는 칠성이와 할아범은 전쟁통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아범은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에 자식을 잃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모니카를 불고 조는’ 행위로 처량함과 슬픔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조는 2층의 분위기와 상반된 갈등의 공간을 만든다.

<갈매기떼>에서는 부정한 정치, 부패 선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허름한 객주집을 선택했다. 정치 모리배들이 지역 깡패를 이용해 금권 선거를 치르려 하는데 이런 야합이 오가는 곳을 객주집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정한 일이 먼곳이 아닌 바로 민중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객주집은 노동자들이 드나들며 빈곤한 삶을 술로 풀어보려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큰소리로 웃으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정치 모리배들에 놀려 있다. 그리고 지역 깡패들인 갈매기떼들 역시 2층의 웃음 소리에 놀리면서 자신들의 상처받은 삶을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 <갈매기떼>에서는 부정한 정치에 이용당하는 갈매기떼들과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객주집이라는 공간을 선택해 권력자들은 자신만만한 웃음의 정서로, 갈매기떼들과 노동자들은 처량하면서도 위축된 정서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戰後 빈곤, 비민주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개념틀

- 살인 행위와 떠나는 행위

주동인물인 서윤근은 배가 고파 북에서 월남했지만 전쟁 중에 아내를 잃고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성질이 사나워지면서 갈매기때가 되었다. 30 만환을 준다는 나상만의 말에 속아 살인을 저질렀지만 약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하수인으로 이용만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상만에게 불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서윤근은 효심의 정의로운 마음 순수한 사랑에 동화되면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학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상만에 대한 불만은 부정의 정치 현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바뀌게 된다. 서윤근의 이러한 정서는 정신이상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나상만을 죽이겠다는 적대적인 말을 하다가도 자신이 죄인이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 자해 행위를 한다.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상한 행위를 하는 서윤근이 걱정스러워 효심이 곁으로 다가가자 그녀를 피해 도망가기도 한다. 윤근의 비이성적인 행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든 정치적인 상황과 전쟁 뒤 비리와 사기가 횡행하는 현실에 휩쓸려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자각하면서 일어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윤근은 자신을 확대하고 부조리한 삶을 저주하게 된다.

서윤근이 느끼는 현실은 4.19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비민주적인 정치 풍토에 대한 작가 차범석의 개념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의 사회 현실에 대해 서윤근은 절망, 환멸, 분노를 느끼게 되고 효심과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차범석은 시의원 임상옥이 금권선거를 치르기 위해 부정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본에서의 밀수입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부패한 관리를 형상화한다. 작가는 비민주적인 사회 정치 문제가 한국 전쟁 후 빈곤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윤근의 이

야기 외에 할아범 이야기는 전후 빈곤으로 야기된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부플룻이라고 볼 수 있다. 할아범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아들을 잃고 빈곤으로 며느리를 객지에 내보내야 했으며 돈이 없어 남이 피다 남은 담배꽂초를 주워 피는 부랑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영흥관에 든 윤선희가 자기가 찾던 며느리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고 더구나 윤선희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살한 것을 알게 되는 할아범 이야기는 전쟁과 빈곤이 초래한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과 전후 빈곤, 비민주적인 정치 현실을 형상화하는 작가의 개념들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부여하는데 그 감정구조는 극도의 분노, 정신이상적인 상태에서 행해지는 극단적인 살인 행위로 형상화된다.

서윤근이 정치 권력자와 협잡하는 나상만과 갈매기떼 외팔이를 살인하는 행위는 부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이용하는 권력의 비정함에 대한 현실대립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나상만에게 속아 이미 살인을 한번 저지른 서윤근은 이처럼 부패한 상황이 자신의 지수로 해결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비이성적인 감정구조 속에서 살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서윤근이 자신이 이용만 당했다는 깨달음과 잘못된 사회 현실,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현실에 반응하게 되는 데는 효심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효심의 사랑의 감정이 서윤근이 응징을 통해 속죄하고자 하는 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윤근의 행위는 현실에 저항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대립적인 행위’로 형상화되었고 서민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갈매기떼의 해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살인을 지시한 임상옥의 죄과와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결말지어진다. 극적 결말이 서윤근은 죽고 할아범과 쿡크는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이는 정치 현실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작가의

개념들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쿡크는 해남댁을 짝사랑하던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고 할아범은 며느리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는 절망감 속에서 영흥관을 떠나는 것이다. 이들 등장인물의 떠나는 행위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정처 없이 떠도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다소 허무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떠나는 행위는 서운근이 죽음으로 부정한 현실과 맞서려는 현실대립적인 행위와는 달리 현실반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할아범은 슬픔과 절망감 속에서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쉬지 않고 그 슬픔을 가득 안고 채 유랑을 떠난다. 그의 행위는 슬픔을 해소하기보다 유보하는 것을 통해 절망의 감정을 확대시키고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갈매기떼>의 ‘살인 행위’와 ‘떠나는 행위’는 각각 현실대립적이고 현실반응적인 행위로 현실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빈곤과 부정확한 정치 사회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삶의 감각은 분노와 절망감, 처량한 정서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과 비민주적인 정치사회를 주도하는 권력자들은 가난한 민중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불행한 삶을 방치한다. <갈매기떼>는 민중들의 살인 행위와 떠나는 행위를 형상화함으로써 1960년대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한 리얼리티를 구체적인 민중들의 공간 속에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薔薇의 城>의 ‘금기로 인해 단절된 욕망’에 대한 리얼리티

1) 장미의 성 - 위선적이고 폐쇄적인 공간

<장미의 성>의 시대적 배경은 초여름부터 여름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교외에 있는 윤병희의 집이다. 서울 남쪽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윤병

희의 집이 무대 배경이다. 무대의 삼분의 일은 아프리에로 쓰이고 커어튼을 경계로 해서 응접실 겸 서재로 쓰이는 방이 삼분의 이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에에는 “하얀 광목을 씨워 놓은 조각”이 있다. 천장과 창에는 차일 구실을 하는 커어튼이 드리워 있어 아프리에에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 차 있다. 여기에 비해서 응접실은 사방으로 이중창이 있어 밝고 맑은 외계의 풍경이 그대로 시야에 들어온다.

작가는 현실 세계의 특정한 어느 곳을 묘사한 것처럼 지극히 사실적인 집 공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주인공 윤병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이 집을 ‘장미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집은 장미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그러나 장미가 가시를 지닌 것처럼 이 공간에는 상처를 주는 가시 같은 가학적인 요소 또한 잠재해 있다. 윤병희는 대인기피적인 행위, 남자를 방어하는 행위를 하며 외부와의 일체의 친교를 거절하며 지내왔다. 그녀는 이 공간 안에서 개를 기르고, 가정교사를 고용해 딸의 학습을 돕고, 조각을 창작하는 행위를 한다. 그런데 윤병희가 폐쇄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에 밝히기 어려운 사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 배영도는 동성애자 엄밀히 말하면 양성애자였고 동성 애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국으로 떠났다. 이 때문에 윤병희는 심한 배신감과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는 물론 가족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암컷 취급을 당했다는 생각, 능욕 당했다는 생각은 예술적으로 <능욕>이라는 조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하얀 광목이 씨워진 오브제가 바로 이 예술 작품이다.

차범석은 ‘금기’로 인해 억압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동성애(양성애)를 선택하고 남편이 없지만 재혼하지 않고 조각가로 성공한 여성을 설정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서도 사회적인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창조했다. 더욱이 여주인공 윤병희는 남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혼자 사는 여자로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극도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폐쇄적인 모

습이다. 사실적인 무대 공간인 듯하지만 등장인물의 행위는 극적으로 과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에게 능욕 당했다는 생각은 윤병희가 남성을 수컷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전이되고 그녀가 사육하는 두 마리의 수컷 개는 남편과 그의 동성 애인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 개들은 장미의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이 개들을 목욕시키는 일은 윤병희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설정되어 수간(獸姦)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남편과 외모가 닮은 오영택을 부리는 것에서 남편, 남성에게 능욕당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남성을 지배하려는 생각으로 변모됐음을 알 수 있다. 윤병희는 이 남자를 고용해 상애의 학습을 돕고 있지만, 상애와 오영택이 특별한 친밀해진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영택에게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줄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윤병희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남성을 부리는 것을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병희는 사회적인 통념에 젖어 남편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집 안에서는 수컷, 남성을 고용하는 여성 우월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과 더불어 그녀를 억압하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금기를 행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단절한 점이다. 한참 여성으로서의 성숙함이 돋보이는 육감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인 윤병희는 미술평론가 겸 화상인 김한기에게 청혼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등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단절된 성적 욕망은 남성 남편에 대한 증오의 감정구조를 형성하고 다소 일탈적인 행위의 원인이 된다. 윤병희는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는 것도 오영택에게 연민을 느껴 상애와 특별한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남편, 남성에게 대한 상처로 인해 상애의 이성 관계를 단절하려 하고 수컷 개와 남자를 자신이 사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려는 일종의 복수에 가까운 일

탈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설정한 <장미의 성>의 공간은 외적으로는 성공한 조각가의 아름다운 공간인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성애라는 사회적인 금기 사항을 숨기려 하고 남성을 하등 동물로 취급하는 왜곡된 감성의 구조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윤병희의 왜곡된 행동은 등장인물 자신을 억압해 왔고 금기야는 다른 인물들을 억압하려 한다.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인해 오해가 발생해 인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장미의 성>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2) 전통에 얽매인 사랑에 대한 작가의 개념들

- 폭로를 지연하는 행위,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위

윤병희가 '장미의 성'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탈된 쾌감은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인데, 그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이다. 남자를 사랑하면서도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행위이고 사랑이라는 허울을 내세운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에게 남편 배영일이 양성애자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금지된 동성애를 행하는 것에 대해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사는 가족 집단을 깨지 않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고통으로 간직하고 인내하려 한다. 사회적 금기에 대한 윤병희의 행위는 전통에 얽매인 사랑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는 작가의 개념들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을 추구하려는 윤병희는 남편의 동성애를 숨기면서 딸 상애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지니는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을 숨길수록 가족 내의 오해와 갈등은 더욱 극대화된다. 금기를 감추려던 윤병희의 행위는 가족 내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신과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시어머니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도 윤병희가 남편을 찾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딸 상애는 윤병희가 오영택을 향한 연민의 고리를 끊게 하려는 방해자, 또는 사랑의 라이벌, 또는 딸을 지배하려는 구세대라 여긴다. 윤병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인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하고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일으킨다. 가족들 간의 소통 불능으로 무대 공간에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정서가 흐르는데 이러한 위태로운 정서는 음향 효과로 드러난다.

윤병희가 오영택에게 상애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명령을 내린 후 오영택은 상애가 원하는 주스잔을 거부하다가 유리잔을 깨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영택과 상애와의 관계는 물론 위태로운 윤병희와 상애와의 관계 또한 깨뜨리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윤병희와 남편 배영도의 사랑이 깨지는 회상의 공간에서도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내던지는 소리와 함께 화병이 깨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대리인』, 247쪽)라는 청각적인 효과가 연출되고 있다. 또한 김한기가 한국에 돌아온 배영도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윤병희를 설득하자, 윤병희는 그제서야 남편의 동성애를 폭로하는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 폭우가 쏟아지기 전 천둥소리로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된다.

전통적인 관습에 젖어 윤병희는 남편 배영일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을 수컷으로 여기고 여성 우월주의적인 생각과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고통을 인내하려 하면서 폭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병희의 행위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랑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정서적, 정신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기를 유지하려는 마음은 도리어 사랑에 대한 상실감으

로 확대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며 고통의 감정을 강화한다. 윤병희는 고통과 슬픔을 비이성적인 행위로 드러내는데 이는 국제미술전에서 입선한 조각 <능욕>을 만지는 것에서 극대화된다 <능욕>은 “두 개의 커다란 「알미늄」판이 나무토막으로 연결된 형태의 조각”(『환상여행』, 215쪽)이다

가운데 놓인 「능욕」의 「알미늄판」을 서서히 어루만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살아 있는 동물의 등을 어루만지듯 정답고 사랑스러운 손길이다. 그 뿔인가에 대한 열띤 갈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세이다
(『환상여행』, 237쪽)

그녀는 쓰러진 자리에서 「아프리에」에 서 있는 조각을 쳐다본다. 꿈꾸는 듯하다가도 금시 원망스런 눈빛으로 변하자 그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서더니 조각을 힘껏 밀어뜨린다. 조각은 요란스런 소리를 내면서 마루바닥에 쓰러진다. 그 소리는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라기보다 어떤 신음과도 같은 고통스런 소리로 변한다. 바닥에 멩그러니 뉘있는 조각을 내려다보고 있던 병희는 서서히 쪼그리고 앉아서 「알미늄」 판을 어루만진다. 그것은 마치 정다운 사람의 가슴과 등을 어루만지는 동작과도 같다.
(『환상여행』, 274쪽)

병희가 <능욕>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만든 작품과 자위행위를 하는 듯하다. 이러한 극적 행위가 남편이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홀로 아프리에에 남아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경우 더욱 괴이하게 여겨진다. 한편으론 능욕이라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 같은 행위, 가학적인 행위를 즐기는 것 같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폐쇄된 공간 안에서 각기 다른 비이성적인 행위를 한다.

시어머니 이씨는 아들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이씨가 기억하는 아들 배영도는 양성애자가 아닌 천재 화가이며 미군의 도움만을 받았고 무고하게 며느리에게 쫓겨났다. 배영도라는 인물은 가정교사 오영택 역할을 맡는 배우가 일인 이역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씨의 회상을 통해 등장한다. 배영도는 마르고 가여운 뒷모습으로 서 있다가 말 한마디 없이 한숨만 쉬다가 퇴장한다. 오랫동안 윤병희를 괴롭히고 있는 배영도는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동성애를 하지만 천재이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습에 젖어 배영도를 거부하는 윤병희를 이씨는 영문도 모르고 증오하며 김한기와 오영택이 출입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분노를 표출한다. 이씨는 가족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등 가족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거부하며 며느리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아들을 회상하고 상해를 끄찍이 여기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있다.

상애는 오영택에 대한 연민에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병들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이씨에 의해 오영택이 가정교사를 그만두게 되자 그 분노를 엄마인 윤병희에게 터뜨리며 그녀가 가부장적이고 가식적이고 폐쇄적인 행위를 한다고 저항한다. 그리고는 급기야 윤병희의 일탈적인 욕구 해소의 대상이었던 수캐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한다. 상애가 수캐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행위는 남편의 동성애를 은폐하며 가장 역할을 하던 윤병희의 억압된 욕망을 들추어내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기존의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진실을 감추며 살아온 윤병희의 장미의 성은 오히려 폐쇄외 은폐로 인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증오의 행위 상애의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는 가족의 해체라는 결말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장미의 성’ 안 인물들의 행위는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있다. 금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컸던

윤병희는 스스로 단절된 욕망, 억압한 욕망으로 인해 비이성적이고 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유보하면서 그 정서의 폭이 확장된다. 각 인물들이 고통과 증오를 유보하면서 보여주는 현실반응적인 행위는 가족이 해체될 위기가 계속된다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회적인 금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랑은 사람을 더욱 내적으로 억압한다는 작가의 개념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미의 성>은 1960년대 민주적인 질서를 열망하는 정치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질서를 해체하려는 인식에 대한 새로운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을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행위 분석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삶의 리얼리티’와 작가 차범석의 개념들을 논할 수 있는 방법론이었다. 차범석이 이 두 작품을 통해 강조하는 리얼리티는 각각 ‘부정한 정치 사회에 대한 리얼리티’, ‘금기로 인해 단절된 욕망에 대한 리얼리티’임을 알 수 있었다.

<갈매기떼>는 객주집 공간을 선택해 이 공간이 민초들의 처량한 삶의 공간이자 권력자들의 음모의 공간임을 보여줌으로써 부패한 사회정치가 민중들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형상화했다. 작가는 전후 빈곤이 비민주적인 정치 현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들을 보여주었다.

<薔薇의 城>에서는 금기를 깬 남편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윤병희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예술가의 공간으로 꾸미는 위선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이 연출되었다. 등장인물은 전통에 얽매인 사랑을 추구하고 금기를 깬 남편의 행위에 대한 폭로를 유보하는데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증오의 정서는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인습에 젖은 사랑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해서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유발한다는 작가의 개념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차범석이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는 1960년대 서구의 탈근대 움직임과는 달리 4.19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의식을 지니면서도 보다 내면적인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신 이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위는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 외에 다른 작품들의 인물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반복되는 장치로, 차범석이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주된 행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연극계에서는 사실주의 양식이 일탈된 양상을 보이면서 비사실주의 계열의 연극이 선보인 때이다. 또한 4.19와 5.16이라는 정치적인 격변 속에 인식론적 충격과 가부장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재영토화 되는 가족과 사회의 지형, 분단 체제와 반공이데올로기, 가부장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폭력성⁴⁹⁾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범석은 사실주의극을 고수하면서도 작품 속에 변화되는 정치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갈매기떼>와 <장미의 성>에서는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위는 각각 1960년대의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주의적인 인식에 대해 현실대립적인, 현실반응적인 행위의 형태로 인식론적 충격을 주려는 작가의 개념들을 형상화하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갈매기떼>는 부정한 정치 현실을 민중적인 생활 터전 속에 옮겨놓았고 <장미의 성>은 일반적인 의미의 전통적인 인습(금기)에 얽매어 있는 사랑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1960년대 차범석 희곡에서 드러나는 관조적이고 보수적인 인식과는 다른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9) 박명진, 「1960년대 희곡과 연극」, 『1960년대 희곡연구』, 새미 2002, 38면

주제어 : 삶의 리얼리티, 사실주의극, 작가의 개념틀, 감정구조, 비이성적인 행위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차범석, 『代理人 : 車凡錫 戯曲集』, 宣明文化社 1969.
_____, 『幻想旅行 : 車凡錫 第三戯曲集』, 語文閣 1975.
_____,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현대 한국문학전집』9 (車凡錫 吳有權 秋湜 集), 新丘文化社, 1966, 496~499면.
_____, 「리얼리즘 演劇 小考」, 『演劇學報』2집, 동국대학교 연극연상학부, 1968, 44~49면
_____, 『동시대의 연극인식 : 車凡錫 演劇論叢』, 汎友社, 1987.
『서울신문』, 1965.3.25.
『63년의 鳥瞰-예술계』, 『한국일보』, 1963.12.19.

2. 단행본

- 극단산하, 『劇團山河十年史』, 劇團山河 1974.
김방옥, 『한국사실주의 희곡 연구』, 동양공연예술연구소 1989.
김옥란, 『한국 현대 희곡과 여성성/남성성』, 연극과인간 2004.
김용수, 『한국연극 해석의 새로운 지평』, 서강대출판부, 1999.
_____, 『드라마 분석 방법론』, 집문당 2003.
무천극예술학회, 『차범석 희곡 연구』, 국학자료원 2003.
민족문학사연구소(희곡분과) 편, 『1960년대 희곡연구』, 새미 2002.
박명진, 『한국전후희곡의 담론과 주체구성』, 월인, 1999.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90.
서연호·이상우, 『우리 연극 100년』, 현암사, 2000.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 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 이승희, 『한국사실주의 희곡, 그 욕망의 식민성』, 소명출판, 1994.
- 이재명, 『극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2003.
- Aristotle,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1996.
- Bernhard Asmuth, 『드라마분석론』, 송진 역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5.
- J. L. Styan, Drama, 『근대극의 이론과 실제 1』, 원재길 옮김, 1988.
- Lilian R. Furst, *Realism*, ed. Lilian R. Furst, London:Longman, 1995.
- Manfred Pfister, *The Theory and Analysis of Drama*, Cambridge:Cambridge UP, 1988.
- Raymond Williams, *Drama from Ibsen to Brecht*, London: The Hogarth Press, 1987.
- _____,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 Penguin Books, 1965.
- _____,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2003.
- S. H. Butcher, *Aristotle's Theory of Poetry and Fine Art*,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Inc., 1951.
- Stephan Khol,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여균동 역 미래사 1986.

3. 논문

- 백로라, 「1960년대 희곡 연구 차범석 · 이근삼 · 박조열 · 오태석을 중심으로」, 송실대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1960년대 연극운동 연구」, 『한국극예술연구』제12집 한국극예술학회, 2000, 209~254면
- 유민영, 「차범석론-변천하는 사회의 풍속도」, 『한국 현역 극작가론 2』, 예니, 1994, 207~243면
- 이경복 『車凡錫 戯曲 研究』, 梨花女大 석사학위논문 1988.
- 임경순, 「1960년대 소설의 주체와 지식인적 정체성」, 『상허학보』12집 상허학회, 2004, 11~38면
- 정철, 「車凡錫의 戯曲 研究」, 朝鮮大 석사학위논문 1988.
- _____, 「차범석 희곡의 주제의식」, 『드라마논총』 15호, 한국드라마학회, 2000, 117~145면.
- 최연화, 「車凡錫 戯曲 研究」, 大邱曉星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n Dramatic Actions of Cha, Bum-Suk's Drama, <Seagulls>
and <Castle of Roses>

Kim, Hyang

This is a study on <Seagulls> and <Castle of Roses> focusing on an analysis of their actions. These works show the 'reality of a rigged election' and the 'reality of desire inhibited by taboos'.

In <Seagulls> there is a contrast in the spatiality between the poor lower classes and the schemers in authority. Cha depicts a corrupt political authority deeply entwined with people's everyday lives. And his conceptual structure is a postwar poverty that is connected with an undemocratic political reality.

In <Castle of Roses> there is a hypocritical and closed spatiality. Yoon, Byoung-hee suffers as a result of trying to hide her husband's behaviour which has broken taboos. She couldn't accept the breaking of taboos and longs for a traditional family. Her concept of love, which cannot break free from convention, as well as the fact that she must suppress her desire to expose his homosexuality makes her hate her husband all the more. So we can see love which is a slave to convention oppressing people and leading to irrational and destructive behavior. This is a Cha's conceptual structure in <Castle of Roses>.

Through these depictions we can see that the 'reality of life' of these two works has not only a democratic political consciousness but also an instinctive desire,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European 1960s' postmodernism. And irrational actions are seen in many of Cha's dramas, so we think that irrational behavior is Cha's dramatic device.

There is an anti-realism in the 1960's current in drama, it gives a cognitive shock in

the area of political issues. These two works are not an anti-realism but realism drama, but they have a political consciousness focusing on democracy and anti-violence depicted through 'active' and 'reactive' actions.

Thus we can realize that Cha's irrational actions in such realism dramas are not only his own dramatic feature but also distinctive dramatic actions differentiated from 1960's dramas.

key words : reality of life, realism drama, conceptual structure of writer, emotional structure, irrational actions

접 수 일 : 2004년 8월 17일

심사기간 : 2004년 9월 1~30 일

게재결정 : 2004년 10월 9일(편집위원회)

K C I